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장동진*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먼저 기독교 상담과 관련하여 목회상담, 기독교 심리치료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간에 명확한 구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방법 역시 상이하다. 또한 통합에 대한 관점 역시 다양하여,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독교 상담 모델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기독교 상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함이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입장은 절대적인 진리를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적 입장과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진리는 없으며 각자 개인의 해석과 관점만 존재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데, 본 연구자는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접근을 제안한다. 이는 인간의 이해는 언제나 오류가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기독교 진리는 존재함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태도로 기독교 상담을 바라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상담, 다양성, 모더니즘적 사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

*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실장

2015년 10월 29일 접수, 12월 14일 최종수정, 12월 21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최근에 들어오면서 서로 갈등이라는 입장 속에 있다고 여겨지던 심리학과 기독교의 관계가 변화하며, 기독교 상담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Worthington, 1994; 김용태, 2006). 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통합 운동(Integration Movement)의 영향이 큰데, 심리학, 정신의학 또는 상담 분야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 전문가들이 자신의 신앙의 기초 위에 심리학 및 정신의학적 지식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Skinner, 2002; Beck, 2006; 김미숙, 2006). 김용태(2006)는 이를 기독교 상담의 역사 중 “통합의 역사(p.37)”라고 칭하며 기독교 상담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워딩턴(Worthington, 1994)은 기독교 상담의 역사를 1975년 이전의 비체계적이고 기독교 상담의 흔적이 있는 초기, 1975년부터 1982년까지의 왕성한 활동과 정교한 모델의 개발을 중점으로 했던 중기, 그리고 그 이후의 정체기로 보았는데, 그 역시 가장 활발한 시기인 중기의 시작을 통합 운동으로부터 찾았다.

기독교 상담에서의 통합 운동 결과, 많은 신학교를 비롯하여 고등 교육 기관에서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도 상담을 받아들였다. 높은 수준의 학술 저널이 출간하기 시작하였고, 역기능 가정, 학대, 성인아이 등과 같은 용어가 교회 내에서 보편화되었고, 가정, 양육, 치유, 상담관련 책들도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안경승, 2012). 통합 운동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기독교 상담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고, 이론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서, 회복사역, 영성발달 등 내담자들의 임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로 초점의 변화가 생겼다(Collins, 2000). 세라노(Serrano, 2006)는 이러한 변화를 통합 운동 초기에 일반 심리학과 경쟁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원칙들로 구성된 세계관에 지배받는 기독교 심리학의 이론과 관점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끝이 나고, 기존에 있는 일반 심리학과 상담학 이론들을 기독교 상담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안경승(2012)은 기독교 상담이 발전하며 기독교 상담의 접근방법과 분야가 다양해 졌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상담 분야로서 성경적 상담, 기독교 평신도 상담, 목회상담, 목회심리학,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결혼과 가족교육, 기독교 가정 및 부부상담, 기독교 가정사역 및 회복사역,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서 인도되는 전문심리치료/상담, 기독교코칭, 영적 지도 및 영성 형성 등 11가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해지고 있는 기독교 상담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어떤 학자들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는 기독교 상담에 대해 조심스러움을 표현하며, 기독교 상담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은규(2006)는 기독교 상담 사이에서 심리학에 대한 일치성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에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고, 이봉남(2015)은 통합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함으로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였다. 박기영(2007)은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를 다음 세 가지로 주장했다. 첫째,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혹은 무조건 거부하는 기독교 상담자의 반응, 둘째, 기독교 신앙과 반대하는 심리학자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의 부족, 그리고 세 번째, 짧은 기독교 상담의 역사이다. 이와 같은 혼란의 원인을 이야기하며, 그는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벡(Beck, 2006)은 기독교 내의 근본주의적(Fundamentalism) 전통으로 말미암아, 일부의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제외한 다른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고, 상호 배타적으로 상대방의 기독교 상담의 관점과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독교 상담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상담의 단일 정체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정체성의 혼란과 배타적인 경향성 사이에 있는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을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사용되는 일치되지 못한 용어들과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성이 실제로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다음,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독교 상담에 대한 용어의 다양성

기독교 상담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상담과 관련되어 여러 용어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김용태, 2006).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상담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과 기독교

심리치료(Christian Psychotherapy)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독교 상담과 관련하여 목회상담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기독교 상담과 목회상담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존재한다(김미숙, 2006; 김용태, 2006; 전요섭, 2007; 안석모 등, 2009). 먼저, 목회상담을 기독교 상담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김미숙, 2006; 안석모 등, 2009). 안석모 등(2009)은 목회상담은 기독교 상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목회상담의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목회상담이 기독교 상담에 비해 더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2006)은 목회상담의 한 형태로서의 기독교 상담을 보았는데, 그녀는 기독교 상담을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상담으로 보았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 상담이 목회상담보다 보다 포괄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김용태, 2006; 이은규, 2006). 김용태(2006)는 목회상담이 기독교 상담 안에 포함되는데, 목회상담은 기독교 상담의 일부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은규(2006) 역시 동일한 관점을 주장했는데,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인 상담 전문가가 기독교의 교리를 기초로 해서 신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고, 목회상담은 지역교회를 근거로 하는 목회사역의 일환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목회상담은 기독교 상담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해당하는 특수한 형태의 상담이라고 보았다. 이와는 다르게, 기독교 상담과 목회상담을 동일하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강용원, 2004; 권수영, 2007; 안석, 2013). 권수영(2007)과 안석(2013)은 기독교 상담과 목회상담을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목회)상담”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강용원(2004)은 기독교 상담과 목회상담은 성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기능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목회상담을 지배하는 원리와 기독교 상담을 지배하는 원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목회상담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가장 대표적으로 목회상담의 가장 큰 특징을 목회자에 의해 실시되는 상담이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목회상담의 독특한 특징을 목회자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Kreb, 1980; Schlaugh, 1985; Holling, 1990; 신명숙, 2010). 크렙(Kreb, 1980)은 목회상담을 장기적으로 목사(pastor)에 의해서 실시되는 상담으로써, 목회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성격에서의 변화라고 정의했고, 슬라흐(Schlaugh, 1985)는 목회상담에 대한 정의 중 제일 첫 번째가 목회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상담이라고

정의했으며, 홀링(Holling, 1990) 역시 목회상담이 다른 상담과 비교해 구분되는 독특한 점이 상담자가 안수를 받은 목사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명숙(2010)은 목회상담과 기독교 상담이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가 목사일 경우에는 목회상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목회상담은 목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만 한다는 관점과 다른 견해를 지닌 학자들도 있다(Collins, 1988; 유재성, 2006). 콜린스(Collins, 1988)는 상담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민감하고 관심이 있는 평신도들도 목회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유재성(2006)은 목회적 돌봄의 제한적인 형태로 목회상담을 이해하면서 목회상담은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전체 성도가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반면에, 포어(Power, 1990)는 상담자가 다루는 주제가 목회상담의 고유성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목회상담은 상담자의 신분, 역할 또는 상담이 진행되는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주제일 때 그 상담이 목회상담이라고 보았다. 김용태(2006)은 목회상담의 정의들에서는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목회라는 틀 속에서 목회상담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 전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기독교 상담과 관련되어 기독교 심리치료란 용어가 사용된다(박운수, 1994, 1996; Carter, 1996; Benner & Hill, 1999; 김용태, 2006). 기독교 상담과 기독교 심리치료의 관계는 일반 상담과 일반 심리치료의 관계와 유사한데(김용태, 2006), 일반 상담 영역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과 심리치료 활동의 초점이 의식적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인지에 따라 상담과 심리치료로 구분될 수 있다. 니스툴(Nystul, 1999)은 상담과 심리치료가 차이보다는 같은 점이 많지만, 가장 주된 차이로서 상담이 의식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면, 심리치료는 무의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담과 심리치료를 구분하였다. 또한, 이장호(1987)는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의식적 수준에서 다루고, 심리치료는 성격의 문제를 무의식적 수준에서 다룬다고 주장했다. 둘째, 상담과 심리치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패터슨(Patterson, 1973)은 상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반하여 심리치료는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들을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돕는다고 보았

다. 힐과 오브라이언(Hill & O'Brien, 2001) 역시 상담은 좀 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한 편 심리치료는 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다룬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장호(1987)는 상담심리학 전공의 석사와 박사들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심리치료는 임상심리학 전공의 석사와 박사 및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상담과 심리치료 활동의 성격에서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는데, 니스틀(1999)은 상담은 예방적, 발달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심리치료는 교정적이고 치료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박성수(1987)는 상담은 교육적인 모형인 반면 심리치료는 의학적인 모형이고 따라서 심리치료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의학적인 모형으로 이해하고 질병의 문제로 다루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상담과 심리치료는 다루고 있는 영역과 주로 사용하는 기법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이장호(1987)는 상담은 주로 행동, 태도상의 변화와 사고, 심리적 갈등을 다루고, 심리치료는 성격장애 영역을 주로 담당한다고 주장했고, 커즈니와 웨딩(Corsini & Wedding, 2000)은 상담에서는 설명, 정보 제공 및 충고의 기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심리치료에서는 경청, 지지 및 해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담과 심리치료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넬슨-존스(Nelson-Jones, 2011)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구분하는 일은 비전문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활동을 구분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칼 로저스(Carl Rogers)나 앨버트 엘리스(Albert Ellis)와 같은 초창기 이론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이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일하게 제임스와 길리랜드(James & Gilliland, 2003), 폴, 홀든 그리고 마르퀴즈(Fall, Holden, & Marquis, 2004) 등의 학자들도 상담과 심리치료의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였고, 2011년 영국의 상담학회(the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역시 상담과 심리치료의 구분이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영국 상담 심리치료학회(the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로 변경하였다(Nelson-Jones, 2011).

기독교 심리치료도 일반 심리치료의 정의와 유사하게 정의되는데, 박윤수(1994, 1996)는 기독교 심리치료를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 억압되어진 갈등과 정서,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기억들을 탐색하고 치료하여, 내담자 인격의 전인적이면서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심층적이며 장기적인 도움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그는 기독교심리치료에서 개인의 무의식적 측면과 치료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반면, 카터(Carter, 1996), 베너와 힐(1999), 안석모 등(2009) 그리고 클린튼과 호킨스(Clinton & Hawkins, 2011) 등의 학자들은 기독교 상담과 기독교 심리치료의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III. 기독교 상담에서의 통합과 모델의 다양성

기독교 상담 분야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통합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한다(Eck, 1996; Faw, 1998; 김용태, 2006). 포(Faw, 1998)는 통합이란 개념의 핵심 의미가 전체성에 있다는 주장 외에 학자들 간에 통합에 대한 공통된 견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고, 에크(Eck, 1996)는 기독교 상담에서 학자들 간에 일치되는 통합의 정의가 없고, 통합의 기초가 되는 전제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명제 외에는 학자들 간의 공통된 의견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김용태(2006)는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정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은 기독교 상담의 여러 모델들로 설명될 수 있다(Collins, 1977; Crabb, 1977; Carter & Narramore, 1979; Farnsworth, 1982, 1985; Kirwan, 1984, Evans, 1993). 최근 들어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큰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재분류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에크(1996), 김용태(2006), 그리고 존슨(Johnson, 2010)의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크(1996)는 심리학과 신학의 개별 학문으로부터 자료들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기독교 상담 모델들을 ‘비통합적 패러다임’(Non-integrative paradigm), ‘조정적 통합 패러다임’(Manipulative integration paradigm), 그리고 ‘비조정적 통합 패러다임’(Non-Manipulative integration paradigm)으로 크게 구분했다.

가정 먼저 ‘비통합적 패러다임’은 심리학과 신학으로부터 나온 자료들 간의 통합을 거부하는 패러다임으로써, 통합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비통합적 패러다임’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오직 과학적 지식만이 참이라고 여기며, 신학을 미신과 신화 정도의 지위로 여기는 ‘신학을 거부하는 심리학 모델’(Psychology rejects theology model)

과 성경적 계시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심리학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거부해야 함을 주장하는 ‘심리학을 거부하는 신학 모델’(Theology rejects psychology model)이 있다. ‘신학을 거부하는 심리학 모델’은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프로이트(Freud), 스키너(Skinner) 등의 일반심리학자들과 카터와 내러모어(Carter & Narramore, 1979)가 제시한 통합 모델 유형 중 반대 모델(Against model)의 세속 편(Secular version)이 포함되며, ‘심리학을 거부하는 신학 모델’은 카터와 내러모어(1979)의 반대 모델의 신성 편(Sacred version), 크랩(Carbb, 1977)의 도움이 되지 않는 모델(Nothing-buttery model), 그리고 에반스(Evans, 1977)의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유형(Limiter of science) 중, 과학이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모델(Territorialist)이 속해 있다.

‘조정적 패러다임’은 각 학문마다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다는 것은 수용하지만 서로 다른 학문들에서 나온 진리들이 통합의 과정에 바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는다(Eck, 1996). ‘조정적 패러다임’은 두 가지 통합의 과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 학문에서 진리를 취해 다른 학문의 진리에 포함시키는 ‘재구성 통합 과정’(Reconstructs integration process)과 한 학문에서 나온 자료들은 변형되어 통합 과정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변형 통합 과정’(Transforms integration process)이다. 한 학문에서의 진리를 취해 다른 학문에 포함시키는 ‘재구성 통합 과정’에는 두 가지 통합 모델이 있다. 첫째, ‘심리학이 신학을 재구성 하는 모델’(Psychology reconstructs theology model)은 신학적 진리는 반드시 심리학적 맥락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카터와 내러모어(1979)의 소속 모델(Of model)과 에반스(1977)의 재해석 유형(Reinterpreter) 중, 과학적 이해에 맞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모델(Capitulator), 그리고 판스워스(Farnsworth, 1985)의 전환 모델(Convertibility model)이 속해 있다. 둘째는 ‘신학이 심리학을 재구성 하는 모델’(Theology reconstructs psychology model)인데 이 모델은 심리학이 가진 자연 과학 전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심리학의 진리를 신학적 맥락 안으로 가져오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콜린스(1981)의 도움이 되지 않는 모델(Nothing-buttery model)이 포함되어 있다. ‘조정적 패러다임’의 또 다른 통합 과정인 ‘변형 통합 과정’은 다시 두 가지 통합 모델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경험적 방법론으로 대표되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신학적 진리가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심리학이

신학을 변형시키는 모델'(Psychology transforms theology model)으로써, 이 모델에는 판스위스의 전환모델(Convertibility model)이 속해 있다. '변형 통합 과정'의 두 번째 통합 모델은 '신학이 심리학을 변형시키는 모델'(Theology transforms psychology model)인데, 이 모델은 심리학적 진리는 반드시 특정한 신학적 여과기를 거쳐야 한다고 믿는 관점이다. 신학이 심리학을 변형시키는 모델은 다시 성경의 여과기를 통해 일반 심리학의 진리들이 걸러져야 한다는 '여과 변형기 하위유형'(filter transformer subtype)과 신학적 세계관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한다는 '세계관 변형기 하위유형'(worldview transformer subtype)이 있는데, 크랩의 이집트인에게서 빼앗기 모델(Spoiling Egyptians model), 에반스의 과학적 방법론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형(Humanizer of science) 중, 과학적 방법론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델(Particularists model), 판스위스의 신용모델(Credibility model)은 '여과 변형기 하위유형'에 포함되고, 콜린스의 재건 모델(Rebuilding model), 판스위스의 적응 모델(Conformability model)은 '세계관 변형기 하위유형'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에크(1996)는 '비조정 통합 패러다임'을 제안했는데, 이 패러다임은 각 학문에서 나온 자료들이 변형 없이 직접 통합 과정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는 관점을 취한다. 이 패러다임은 다시 두 가지 통합 과정을 가지는데 첫째는 '상관 통합 과정'(Correlates integration process)으로써 이 통합 과정은 각 학문의 진리들은 그 학문의 맥락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학문 안에 있는 분리되었던 진리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통합 과정에는 '심리학과 신학을 관련짓는 모델'(Psychology correlates with theology model)이 있는데, 이 모델은 '수준을 관련짓는 하위유형'(Correlates-levels subtype)과 '연결장치를 관련짓는 하위유형'(Correlates-linkages subtype)이 있다. '수준을 관련짓는 하위유형'은 심리학과 신학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카터와 내리모어(1979)의 평행 모델(Parallel model), 콜린스(1981)의 분석 수준 모델(Level of analysis model), 크랩(1977)의 분리되었지만 동등한 모델(Separate but equal model), 에반스(1982)의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유형(Limiter of science) 중, 다른 관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모델(Perspectivalist model), 판스위스(1985)의 보완 모델(Complementary model)이 이 하위유형에 속해 있다. 또한 '연결장치를 관련짓는 하위유형'은 각 학문의 진리들 사이의 연결장치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유형에는 카터와 내리모어(1979)의 평행 모델(Parallel

model) 중, 상관 방식(Correlation version)과 콜린스(1981)의 철로 모델(Railroad track model), 에반스(1977)의 재해석 유형(Reinterpreter) 중, 인간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이해와 조화된다는 모델(Compatibilist model), 그리고 판스위스(1985)의 병립 모델(Compatibility model)이 포함되어 있다. ‘비조정 통합 패러다임의 두 번째 통합 과정’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Unifies integration process)인데, 이 과정에는 신학과 심리학의 진리들이 함께 통합되어져서 하나의 새로운 진리가 만들어지는 ‘심리학과 신학이 하나로 통합되는 모델’(psychology unifies with theology model)이 있고, 카터와 내러모어(1979)의 통합 모델(Integrates model), 콜린스(1981)의 지퍼 모델(Zipper model), 그리고 크랩(1977)의 혼합 모델(Tossed salad model)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김용태(2006)는 콜린스(1977), 크랩(1977), 카터와 내러모어(1979), 판스위스(1982), 커윈(Kirwan, 1984) 등이 제시한 기독교 상담 모델들을 연구하여,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활용 구조, 평행 구조, 통합 구조, 반대 구조 등 4가지 구조로 기독교 상담을 분류했다.

첫째로 활용 구조(Useful structure)는 심리학적 사실들을 종교적 상황에서 활용하는 통합의 한 형태이다. 이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개발된 심리학적 사실들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초자연적 계시나 치유 등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크랩이 제안한 혼합 모델(Tossed salad model)이나 카터와 내러모어의 모델들 중 소속 모델(Of model)과 동일하며, 에릭 프롬(Eric Fromm), 호바트 모우러(Hobart Mowrer), 칼 메닝거(Karl Menninger) 등이 이러한 입장을 본인들의 통합의 구조로 취하였다(김용태, 2006).

둘째로 평행 구조(Parallel structure)는 심리학과 기독교를 동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장이다. 평행 구조는 다시 동일 입장(Same position)과 수준 입장(Level position)으로 구분되는데, 동일 입장은 심리학과 기독교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수준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심리학은 일상 수준이고 기독교는 형이상학적 수준으로써 서로 다른 수준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평행 구조는 카터와 내러모어가 제시한 평행 모델(Parallel model), 판스위스의 모델들 중 병립 모델(Compatibility model)과 보완 모델(Complementary model), 그리고 커윈이 제안한 평행 모델(Parallel model)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동일 입장에는 판스위스의 모델들 중 병립 모델이 포함되며, 수준 입장에는 보완 모델이 포함된다. 또한, 프레드릭 쏬

(Frederick Thorne), 고든 알포트(Gordon Allport), 폴 클레멘트(Paul Clement) 등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통합의 구조로 평행구조의 입장을 취했다.

세 번째 구조는 통합 구조(Integrated structure)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기독교와 심리학이 공통부분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통합구조는 다시 동등 입장(Equal position)과 권위 입장(Authority position)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 입장은 공통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동등 입장에서는 심리학과 기독교가 서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심리학적 자료들과 종교적 사실들이 동등하게 취급되면서 통합을 이루며, 권위 입장에서는 계시에 의한 성경적 지식들이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심리학적 지식들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권위 입장에는 다시 성경적 진리보다 아래에 있는 심리학적 지식을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따라서 거부(Rejection) 관점과 변형(Transformation) 관점으로 나뉘지는데, 거부 관점은 심리학적 지식을 성경적으로 여과하여 필요한 부분들만 받아들이며 나머지는 거부하는 입장이며, 변형 관점은 성경적으로 걸러진 심리학적 지식들을 거부하지는 않고 이를 다시 성경적으로 일치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입장이다. 통합 구조 중 동등 입장에는 콜린스가 제시한 지퍼 모델(Zipper model)과 카터와 내러모어가 제시한 통합 모델(Integrates model)이 포함되어 있으며, 카터와 내러모어 등이 이 동등 입장을 본인들의 통합의 구조로 사용하였다. 반면 권위 입장 중 거부 관점에는 판스위스의 모델들 중 신용 모델(Credibility model)과 크랩과 콜린스가 제시한 이집트인에게서 빼앗기 모델(Spoiling the Egyptians model) 등이 포함되며, 크랩은 이 관점을 자신의 통합의 구조로 취하였다. 또한 권위 입장 중 변형 관점에는 판스위스가 제시한 적응 모델(Conformability model)과 콜린스의 재건 모델(Rebuilding model)이 속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콜린스가 이 관점을 자신의 통합의 구조로 사용한 학자이다.

마지막으로 반대 구조(Against structure)는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심리학적 지식과 사실 역시 타락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오직 계시된 기독교의 진리만이 진리라는 입장을 갖는다. 이 관점에는 콜린스가 제시한 부인 모델(Denial model), 카터와 내러모어의 모델들 중 반대 모델(Against model), 커윈이 제시한 영화 모델(Spiritualized model), 그리고 크랩이 제시한 도움이 되지 않는 모델(Nothing-buttery model) 등이 속해 있으며, 제이 아담스(Jay Adams), 폴 빌헤이머(Paul Billheimer), 찰스 솔로몬(Charles Solomon) 등의 학자들이 반대 구조를 자신의 통합의 구조로 주장

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와는 다르게 존슨(2010)은 단순히 기독교 상담 통합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독교 상담에 대한 “다중 관점적(Multiperspective)(p.292)” 입장을 제안하였다. 이는 모든 인간의 이해가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다섯 가지 기독교 상담 관점들이 가리키는 더 큰 실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독교 상담 모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서로 다른 다섯 가지 관점을 설명 수준 관점(A levels-of-explanation view), 통합적 관점(An integration view), 기독교 심리학 관점(A Christian psychology view), 변형 심리학 관점(A transformational psychology view), 그리고 성경적 상담 관점(A Biblical counseling view)으로 제안하였고, 이들을 대표하는 학자들로 각각 데이비드 마이어(David G. Myers), 스탠튼 존스(Stanton L. Jones), 로버트 로버츠와 왓슨(Robert C. Roberts & P. J. Watson), 존 코와 토드 홀(John H. Coe & Todd W. Hall), 그리고 데이비드 폴리슨(David Powlison)을 선정하여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여, 서로 다른 기독교 상담의 관점을 드러냈다. 존슨(2010)은 각 관점들이 다음의 것들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위치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1) 경험적 연구, 철학, 역사적 연구, 영성, 성경이 상담과 심리학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2)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를 닮는 것이 상담의 적절한 주제로 여기는 정도, (3) 교회적 관심사, 학문적 관심사, 대중적 정신 건강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4) 심리학과 심리치료를 일반은총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교회의 반대 문화로 여기는지, (5) 의심의 해석학과 신뢰의 해석학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6) 과학 또는 심리학과 상담 또는 영혼돌봄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7) 사실과 가치, 묘사 또는 기술과 평가, 머리와 가슴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8) 교회의 문화적 참여와 교회의 순수성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지, (9) 세속주의와 독선적인 과도영성(hyperspirituality) 중 어느 것을 더 주의하는지, (10)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11) 심리적 문제를 생물학, 본성, 또는 사회화와 결부시키는지 아니면 죄와 결부시키는지.

설명 수준 관점은 심리학과 신학을 뚜렷이 구분되는 두 수준으로 본다(Myers, 2010). 이러한 설명 수준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집단 역학이나 뇌 기능과 같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은 영역을 다루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는 마이어스와 지브스(Jeeves) 등이 있다(Johnson, 2010). 대표적으

로 마이어스(2010)는 심리학과 신학, 두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실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각각 실재를 특정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명 수준 관점을 주장했다. 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설명 수준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설명 수준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해되는 실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각 수준의 경계를 흐리지 말아야 하고, 서로 다른 설명 수준을 통하여 하나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적 관점은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integration)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실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Jones, 2010). 통합적 관점은 성경이 모든 문제에 필요한 가르침과 충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며, 심리학 안에도 인간에 대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존스(2010)는 비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성경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모든 문제가 계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서,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했다. 첫째, 성경적인 진리에 우리들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성경과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근본적인 충성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둘째, 자신들의 학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과학이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셋째, 심리학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같을 때, 그런 같등이 부실학 과학이나 부족한 추론 혹은 성경에 대한 틀린 분석이나 잘못된 신학적 추론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에 의해 영향 받는 방식으로 심리학 작업을 해 나가려고 힘써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잠정적이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기독교 심리학 관점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니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따라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심리학을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했다(Roberts와 Watson, 2010). 로버츠와 왓슨(Roberts & Watson, 2010)은 그 예로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은 산상설교가 인간의 성격적 특성과 행동, 정신 병리적 이해, 그리고 심리 치료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심리학적 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심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잘 정립된 사회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론적 가정을 반영하는 인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해야 한다. 만일 기독교적 가설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더 나은 해석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전통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심리학과 현대 심리학이 지니고 있는 형이상학적 전제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 심리학과 현대 심리학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옳지 않은 비판으로부터 기독교 전통을 변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관점들 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만일 기독교적인 이해가 부적절하다면 기독교 심리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변형 심리학 관점은 과학의 성격 자체를 재고하면서, 심리학 하기(doing psychology)를 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로 보았다(Coe와 Hall, 2010). 코와 홀(2010)은 심리학하기를 하나님이 의도한 온전한 인간 활동으로서 보았고, 성령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들은 심리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한 개인으로서 심리학자는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더 변형되어져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에 대한 실재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리학자 자신의 변형을 위해, 실재에 부합하는 인간의 성품, 죄, 행복에 대한 지혜와 지식 체계를 산출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심리학에 대한 영성 형성적 접근법을 주장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선한 성품을 조성하는 영성 훈련을 심리학을 하는 데 본질적이라고 보았다.

성경적 상담 관점을 주장하는 폴리슨(2010)은 기독교 신앙이 일종의 심리학이며, 기독교 사역은 일종의 심리치료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또한 성경적 상담 관점은 성경에 완성된 심리학과 심리치료가 기록되어,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은 일종의 실천 신학적 작업과 동일하게, 기독교 신앙을 현재 우리의 문제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또한, 성경적 상담은 세속 심리학이 인간에 대해 잘못되고 피상적인 견해를 제시한다고 생각하여, 세속 심리학이 지닌, 잘못된 가정과 설명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영향력에 대해 조심해야 함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폴리슨(2010)은 성경적 상담의 도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고통 받고 헤매고 있는 양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으며, 어떻게 해야 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목양 사역이라고 주장했다.

IV.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지만, 휴스턴, 버포드와 존슨(Houston, Bufford & Johnson(1999), 장동진(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기독교 상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음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휴스턴, 버포드와 존슨(1999)은 17명의 “심리학 연구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연합”(CAPS: Christian Association of Psychological Studies)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상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개발된, 기독교 상담과 관련된 13개의 문항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그 결과 13 문항 중 12문항에서 응답의 일관성이 나타났다. 응답의 일관성이 있는 12개의 문항들에서도 응답의 편차가 있었는데, “기독교인에 의해서 실시된다”라는 문항과 “상담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진행된다”라는 문항은 응답의 편차가 적었고, 긍정적으로 답을 하여 기독교 상담자들이 공통되게 찬성하는 편이었음이 나타났고, “상담이 종교적 상황에서 진행된다”와 “상담자는 목회자이다”라는 문항도 응답의 편차는 적었지만,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여 기독교 상담자들이 대체적으로 공통되게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외에 “성경을 사용한다”, “성경에 기초한 기술을 사용한다”, “종교적인 이슈와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탁월함을 강조한다”, “종교적 전통과 훈련들로부터 얻는 기술들을 사용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해 기도한다”, “상담의 주요한 목표가 제자화이다”, “상담의 주요한 목표가 전도이다”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 “기독교 상담은 교인들이 받는다”라는 문항이 전체 문항들의 내적 일치성을 떨어뜨렸는데, 이는 이 문항에 동의한 참여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다른 문항들에 다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휴스턴, 버포드와 존슨(1999)은 “기독교 상담의 내담자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견해가 기독교 상담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주된 요소라고 제안하며, 기독교 상담 안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 상담”(Spiritual counseling)과 내담자가 기독교인으로 제한되지 않는 “정신 건강 상담”(Mental health counseling)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연구인 장동진(2013)의 연구는 우리나라 기독교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Q방법론을 사용하여 기독교 상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연구하여, 기독교 상담자들에

게 서로 다른 4가지 인식 유형이 있음을 발견했다. Q-방법론은 개인이 지닌 주관성(subjectivity)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 방법인데, 주관성이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험을 말한다. 이는 특정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태도, 가치 등을 반영하는데(Brown, 1980), 기독교 상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들이 지닌 서로 다른 믿음과 가치 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말한다(장동진, 2013).

장동진(2013)은 총 21명의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을 연구하였는데, 연구에 참가한 기독교 상담자는 남자 12명, 여자 9명이었고, 대학교(원) 교수 11명, 상담센터(연구소) 소장 5명, 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3명, 대학교(원) 외래교수 1명, 교회 부목사 1명이었다.

Q-방법론을 통하여 기독교 상담에 대해 의미있게 구분되는 4개의 인식 유형이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어떤 기독교 상담자들은 동일하게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자의 상담적 전문성 보다는 상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상담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으며, 기독교 상담이 내담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내담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특별히 기독교 상담자들의 전문성이나 기독교와 상담학의 통합보다는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장동진(2013)은 이러한 인식 유형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둘째로, 어떤 기독교 상담자들은 기독교 상담이 내담자가 성화의 과정을 견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인식함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이를 위하여 일반상담의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내담자의 성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반 상담기술의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장동진(2013)은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성화 중심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셋째로, 어떤 기독교 상담자들은 기독교 상담에서 기독교와 상담학의 통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이 나타났다. 이들은 상담자의 전문성과 기독교적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여겼으며,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기독교 상담이 기독교적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내담자의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와 같이 이 인식 유형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와 상담학의 통합을 강조하여, 장동진(2013)은 이 유형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통합 중심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독교 상담자들은 기독교 상담자들이 지나치게 기독교적 관점만을 주장하여 내담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담자를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기독교 상담자들도 일반 상담적 지식을 갖추고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내담자의 종교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활동으로 기독교 상담을 바라봄이 나타났다. 장동진(2013)은 이 인식 유형을 “전인적 회복을 위한 상담학의 통합 중심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V.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오늘날 기독교 상담은 다양성의 모습과 함께 발달 중에 있다(Eck, 1996; Clinton & Hawkins, 2010). 기독교 상담과 관련하여 용어, 통합에 대한 관점 등에서 다양함이 존재하며, 실제 기독교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더라도 기독교 상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기독교 상담자들이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Van Leeuwen, 1996).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모더니즘적 사고에서는 개인이 지닌 이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이성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서는 보편적이고 일치된 진리는 없으며, 인간의 관점은 모두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Dueck & Parsons, 2004).

과거 기독교 상담의 발전 과정에서는 진리에 대한 모더니즘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과거 신학에서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간의 공격과 그에 따른 적대적인 방어와 관련되어 있다(Serrano, 2006). 초기 심리학에 대해서 수용적이었던 입장은 대부분 모더니즘에 영향을 깊게 받은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을 취했던 인물들이었다(김용태, 2006). 반면 보수적인 입장의 교단에서는 자유주

의자들이 지닌 모더니즘의 과학적 입장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신학적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서의 무오성과 영감설 등을 강조하면서, 성경 중심이 되었으며, 개인의 구원과 선교에 중심을 두게 되었고, 그 밖에 사회나 문화, 과학 등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으로 인해, 기독교 상담 내에서 성경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그 밖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세라노(2006)는 주류 기독교 내에서의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모더니즘의 기본 원리인 경험주의와 역사주의,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를 이성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는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독교 사상의 완전성을 축소시켰던 근본주의자들의 실수로 보았다. 그렌츠(Grenz, 2009) 역시 20세기 초반의 신학자들 역시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신빙성을 드러내는데 있어 이성적 변증법을 사용하였고, 과학적 방법, 실재에 대한 경험적 접근, 상식적인 실재론(*naive realism*) 등 모더니즘적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과학 그리고 심리학에 있어서 실증주의(Positivism)와 경험주의(Empiricism)가 쇠퇴했고, 이는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의 물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는 보편적 진리에의 확신을 포기하게 하였고, 다양한 해석을 평가하는 최종적 기준의 상실로 이어졌다(Grenz, 2009). 이는 곧 기독교 상담에 대한 상대주의적(Relativism) 관점이 강조되었고, 기독교 상담의 단일 정체성에 주목을 덜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Hill & Kauffmann, 1996). 따라서 현재 기독교 상담을 바라보는 입장은 진리에 대한 모더니즘 사고와 포스트모더니즘 사고가 혼재되어 있어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개인 각자가 자신의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점의 수용이라는 측면과 아직까지 남아 있는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이성을 통한 보편적인 진리의 추구라는 관점의 혼재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기독교 상담에 대한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 대하여 “이것이냐, 또는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것과 저것 모두”의 시각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Danermark & Berth, 2005).

먼저 기독교 상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모더니즘

에서 강조하는 지식의 확실성, 진리의 객관성, 지식의 선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야 함과 관련되어 있으며(Grenz, 2009), 이러한 태도는 여러 기독교 상담자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 마이어스(1996)는 개인이 지닌 지식은 이미 그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과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세상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서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진리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지식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Myers, 1996).

존슨(2012)은 인지적 발달 단계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로 *metasystemic* 단계를 제안했는데, 이 단계는 자신의 관점에만 붙잡혀 있는 것(*embeddedness*)이 아니라, 한 개인 인식의 한계를 수용하며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지닌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실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부어(Niebuhr, 1964)는 자신이 지닌 진리에 대한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죄와 연관지어 설명하며 교만으로 이해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이는 인간 정신에 자신과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무조적적인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찾고자하는 경향을 지닌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연약함과 의존성,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는 곧,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역사를 완전히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이 지닌 모든 지식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오염되어 있고 지식은 어떤 특정한 관점에 의해 획득된 유한한 지식임을 의미한다. 지적인 교만은 지식의 유한성과 자기심을 은폐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 상담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 역시 조심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적 상대주의는 언어의 지속적인 변동 밖에서는 어떤 실체의 존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언어로 개념화한 실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지식이 무한하게 상대적이므로 일반적 지식과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주장한다(Danermark & Berth, 2005).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변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야 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수용해야 한다. 클린턴과 호킨스(2010)는 기독교 상담이 정의와 실재에 있어서 폭넓은 범위(*big tent*) 내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 상담의 기초로서 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신학적인 기초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인간, 구원, 성경, 죄, 고통, 성화와 영적 성숙에 대한 교리 등 9가지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용태(2013)는 기독교 상담이 종합적이면서 통합적인 학문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 됨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상담의 기초로서 복음주의적 신앙관을 제시하였다. 그는 복음주의적 신앙관이 기독교 상담의 내적 일관성과 논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 인간이 지닌 지식의 객관성에 의심을 하며 시작하여, 실제(reality)라고 할 수 있는 통일된 전체가 없다는 가정을 지니게 되었다(Grenz, 2009). 하지만, 존슨과 존스(Johnson & Jones, 2000)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진리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실재에 대한 온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존재함을 믿어야 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곧 개인들이 지닌 모든 관점이 동등한 수준으로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어떤 관점은 다른 관점에 비해 진리에 보다 가까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Bhaskar, 1989; Johnson & Jones, 2000; Danermark & Berth, 2005). 존슨과 존스(2000)는 이에 대한 예로 골상학(Phrenology)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데 큰 가치가 없어서 사라져 버린 관점을 제시하였다. 바스카(Bhaskar, 1989)는 이에 대하여 인식론적 상대주의와 판단적 상대주의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인간의 인식은 늘 오류를 지닐 수 밖에 없지만,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실재는 존재하며, 실재에 대한 모든 믿음은 동등하게 타당하지 않아 어느 믿음이 보다 실재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 루우벤(Van Leeuwen, 1996)은 이를 죄론과 창조론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녀는 죄성을 지닌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일구고, 지키게 하신 것은(창 2:15) 인간에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는 실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존슨(2012)은 기독교 상담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원칙에 입각한 다원주의(principled pluralism)를 제안했다. 이는 자신이 유한하고 죄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에 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하

지만, 모든 관점에 대해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자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진리이며, 인간의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하는 관점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경적인 시각을 통하여, 부족할 수 밖에 없지만, 실재에 대해 더 나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이 기독교 상담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일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에 대하여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적인 단순한 지역 내러티브(local narratives)들의 모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메타 내러티브는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충돌하는 해석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Grenz, 2009)고 믿는다. 이와 같이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 역시 인간 지성의 한계로 인해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독교 진리가 있음은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

VI. 나가는 글

기독교 상담은 다양성과 함께 발전해왔으며, 다양한 정의, 실제, 통합에 대한 관점, 모델, 그리고 관련 용어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기독교 상담자들에게서도 기독교 상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학과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점들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깊게 영향 받았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영향 받은,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지만, 본 연구자는 그 사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는 시각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과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인지론적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기독교적 진리

를 인정하며, 기독교적 신앙 위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 그리고 인간관과 일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다(Niebuhr, 1964). 또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인간의 지성 역시 그 유한성과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Van Leeuwen, 1996). 따라서 인간이 지닌 지식의 유한성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 상담의 다양성에 대한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존슨(2010)의 기독교 상담에 대한 다중관점적 입장을 들 수 있다. 존슨(2010)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진리를 아신다고 전제하면서 심리학을 포함하여, 과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에 우리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하나님의 이해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포괄적이지만, 인간의 이해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에, 실재를 비취주는 많은 수의 타당한 관점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존슨(2010)은 지금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양립할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히 포괄적인 이해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다른 학자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함을 의미하면서도, 모든 지식이 지니고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역시 거부해야 함을 의미한다(Grenz, 2009; Johnson, 2012). 모든 인간이 지닌 지식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지식이 동일한 정도의 오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점은 다른 관점에 비해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또한, 모든 관점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관점은 진정으로 다른 관점과 모순된다. 이와 같이 자신과 타인이 지닌 지식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다른 기독교 상담자들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좀 더 가까운 기독교 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용원 (2004). 『기독교 상담의 성격과 구성: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기독교한교.
- 권수영 (2007). 『기독교(목회)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심리학과 신학의 만남』. 서울: 학지사.
- 김미숙 (2006). “기독교 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배경, 내용 그리고 모델들』. 서울: 학지사.
- _____ (2012). “종합적이고 통합적 성격의 기독교 상담학: 학문의 구조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1. 9-32.
- 박기영 (2007). “기독교 상담학의 성향 분류에 따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모델: 성경관, 인간 이해, 심리학 개방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박성수 (1987). 『아동생활지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박윤수 (1994). 『치유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경성기획.
- _____ (1996). 『치유상담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라빠.
- 신명숙 (2010).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 안석 (2013). “영성인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인가? : 영성지향적 상담심리치료로서의 기독교 (목회)상담.” 『신학과 실천』. 35. 435-458.
- 안석모 · 권수영 · 김필진 · 박노권 · 박민수 · 신명숙 · 이관직 · 이정기 (2009). 『목회상담 이론입문』. 서울: 학지사.
- 안경승 (2012).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복음과 상담』. 19. 188-216.
- 유재성 (2006). 『현대 목회상담학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 이봉남 (2015). “기독교 상담 통합방법으로서의 복음적 차용통합론.”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이은규 (2006).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 교육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6. 37-60.
- 이장호 (1987). 『상담심리학 입문 (2판)』. 서울: 박영사.
- 장동진 (2013). “기독교 상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기독교 상담자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전요섭 (2007). 『기독교 상담과 신앙: 은혜의 방편을 통한 치유와 회복』. 서울: 도서출판 좋은나무.

- Beck, J. (2006). "Integration: The next 50 year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5(4). 321-330.
- Benner, D., & Hill, C. (1999).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 counseling*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 Bhaskar, R. (1989). *Reclaiming reality: A critical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hilosophy*. London: Verso.
- Brown, S.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arter, J. (1996). "Success without finality: The continuing dialogue of faith and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2). 116-122.
- Carter, J., & Narramore, B. (1979).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 Clinton, T., & Hawkins, R. (2011). *The popular encyclopedia of Christian counseling*.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 Coe, J., & Hall, T. (2010). "A transformational psychology view." In E. Johnson (Ed.),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pp.199-226). Madison, WI: InterVarsity Press.
- Collins, G. (1977). *The rebuilding of psychology: An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 _____ (1988).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Dallas: Word Publishing.
- _____ (2000). "An integration view." In E. Johnson, & S. Jones (Eds.), *Psychology and Christianity: Four views*(pp. 102-129). Madison, WI: InterVarsity Press.
- Cooper, T., & Browning, D. (2006). "Psychology, religion, and critical hermeneutics: Comments on Reber, Slife and Whoolery, Nelson, and Richards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4(3). 246-251.
- Corsini, R., & Wedding, D. (2000). *Current psychotherapies*. 김정희 역(2004). 『현대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Crabb, L.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A model for helping caring Christians become capable counselor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 Dannermark, & Berth(1997). *Explaining society : critical realism in the social sciences*. 이기홍 역 (2005).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파주:

- 한울.
- Dueck, A., & Parsons, T. (2004). "Integration discourse: Modern and postmoder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3). 232-247.
- Eck, B. (1996). "Integrating the integrators: an organizing framework for a multifaceted process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2). 101-115.
- Evans, S. (1977). *Preserving the person: A look at the human sciences*.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 _____ (1989). *Wisdom and humanness in psychology: Prospects for a Christian approach*. 이창국 역 (1993). 『기독교 심리학 입문: 지혜와 인간미를 지닌 심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Fall, K., Holden, J., & Marquis, A. (2004). *Theoretical model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Y: Brunner_Routledge.
- Fanworth, K. (1982). "The conduct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0(4). 308-319.
- Faw, H. (1998). "Wilderness wanderings and promised integration: The quest for clar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6(2). 147-158.
- Grenz, S. (1996). *A primer on postmodernism*. 김용운 역 (2009).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포스트모던 시대와 기독교 복음』. 서울: Worship & Preaching Academy.
- Hill, C., & O'Brien, K. (1999).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주은선 역 (2001). 『상담의 기술: 성공적인 탐색, 통찰, 실행 상담을 위한』. 서울: 학지사.
- Hill, P., & Kauffmann, D. (1996). "Psychology and theology: Toward the challenge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2). 175-183.
- Holling, W. (1990). "Pastoral psychotherapy: Is it unique?" *Counseling and Values*. 34(1). 96-102.
- Houston, M., Bufford, K., & Johnson, B. (1999). "Distinctive components and perceived sources of gain in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8(3). 238-253.
- James, R., & Gilliland, B. (2003). *Theories and strateg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5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Johnson, E.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Madison, WI: InterVarsity Press.

- _____ (2012). "Let's talk: embeddedness, majority-minority relations, principled pluralism, and the importance of dialogu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1). 26-31.
- Jones, S. (2010). "An integration view." In E. Johnson (Ed.),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pp.101-128). Madison. WI: InterVarsity Press.
- Kirwan, T. (1984).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Kreb, L. (1980). "Why pastors should not be counselors." *Journal of Pastoral Care* 34(2). 229-233
- Myers, D. (1996). "On professing psychological science and Christian fait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2). 143-149.
- _____ (2010). "A levels-of-explanation view." In E. Johnson (Ed.),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pp.49-78). Madison, WI: InterVarsity Press.
- Nelson-Jones, R. (201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ling & therapy* (5th ed.). London: SAGE Publication Ltd.
- Nystul, M. (1999). *Introduction to counseling: An art and science perspective*. Boston and London: Allyn and Bacon.
- Patterson, C. (1973).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Power, C. (1990). "The distinctiveness of pastoral counseling." *Counseling and Value* 34. 75-88.
- Powlison, D. (2010). "A Biblical counseling view." In E. Johnson (Ed.),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pp.245-273). Madison. WI: InterVarsity Press.
- Roberts, R., & Watson, P. (2010). "A Christian psychology view." In E. Johnson (Ed.),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pp.149-178). Madison. WI: InterVarsity Press.
- Schlaugh, R. (1985). "Defining pastoral psychotherapy." *Journal of Pastoral Care* 39(2). 219-228.
- Serrano, N. (2006). "Conservative Christians in psychology: A history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CAPS), 1954-1978."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5(4). 293-304.
- Skinner, T. (2002). *Beliefs of Christian and secular counselors about Christian and secular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Arizona. (University Microfilms No. 3035158)

- Van Leeuwen, M. (1996). "Five uneasy questions, or: Will success spoil Christian psychologist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2). 150-160.
- Worthington, L. (1994). "A blueprint for intradisciplinary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2(2). 79-86.

Abstract

Understanding Diversity of Christian Counseling

Dong-Jin Jang (Hansu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aims to look for diversity of Christian counseling and suggest the direction how to understand that diversity. First of all, in Christian counseling there are many different understandings about terms used in and the way how to integrate Christianity and counseling. Moreover, through some empirical researches it was proven that actually Christian counselors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different perceptions about Christian counseling. Then, how do we understand this diversity? Understanding diversity of Christian counseling is related to the way how to see the truth. There are two major perspectives about getting the truth. These are modern understanding and postmodern understanding. These two perspectives are against each other. However this researcher suggests that when we understand Christian counseling, we need to go beyond these two competitive perspectives. It admits human finitude and God's Truth all together.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diversity, Modernism understanding, Postmodernism understanding